

# “분단 70주년, 한반도의 평화 기원합니다”

## 지역 불교단체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추모 행사 이어져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며 호국 영령을 위로하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원하는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회장 무원)는 6월 2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호국영령 및 UN군 전몰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6·25 전쟁에서 생명을 잃은 유엔군 전몰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상임이사 무원 스님 및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등 각 종교 지도자 공동대표와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합동위령제는 1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분향 및 헌화, 종단별 추모사, 삼광사 화염합창단의 추모곡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2부에서는 각 종교지도자 및 신도들이 유엔기념묘지에서 직접 헌화하고 참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무원 스님은 “호국 선열의 열정으로, 피의 전장에 나섰던 결기로, 남북 평화 통일을 빨리 이루어 한민족이 동고동락 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발원한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전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제35회

군·경 전몰장병 호국영령 영가 천도 49일 지장기도’를 봉행했다. 지난 5월 8일 입재를 시작으로 49일간 진행된 호국영령 천도 지장기도는 6월 25일을 회향식을 가졌다.

주지 정련 스님은 “메르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49일 동안 호국 영령들을 위한 기도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오늘 이곳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불자들의 마음에도 호국 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보훈가족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합동위령제

### 내원정사, 호국영령 49일 지장 기도

### 진여원, 호국영령제·보훈가족 위안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도 메르스로 인해 연기됐던 ‘제17회 진여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진행했다. 6월 2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동암 스님(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위령제로 시작해 2부 추모식에서는 극락왕생기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호국영령 및 UN군 전몰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유엔기념묘지에서 직접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등 밝히기, 내빈들의 헌화 및 분향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 53사단 장병들의 조총발사와 진혼곡 연주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으며 보훈 가족에게 장학금 및 감사패도 전달해 위로했다. 진여원 회주 혜중 스님의 추도 범문에 이어 진여 합창단과 53사단의 추모곡 ‘현충의 노래’가 울려 퍼진 가운데 모든 위령제 및 추모제가 엄숙히 마무리 됐다. 또한 3부에서는 보훈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려 참가한 미망인과 유가족을 격려하는 시간도 개회했다. 혜중 스님은 범어를 통해 “남북 평화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호국 선열의 희생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대립과 집착을 떠나 모두가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쟁정신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현충비를 건립한 후 지금까지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지난 17년 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 진주불교회관 ‘보현의 집’ 후원자 모집

7월 개원 매주 월·수 어르신 위한 점심공양

경남 진주 재가 불자들의 불법 표교와 교육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진주불교회관(이사장 이가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이 7월 개원을 앞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보현의 집 안정임 센터장은 “6월 17일 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려 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일단 7월 말로 잠정적으로 개원식을 연기했다”며 “하지만 후원 모집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진주불교회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보현의 집은 앞으로 매주 월, 수요일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공양을 마련한다.

또한 진주에 혼자 있는 노스님들의 밀반찬 공양과 군법당 간식, 진주불교회관을 찾는 도반들을 위한 공양 등을 준비한다.

아울러 (사)진주불교회관은 보현의 집 개원식을 마지막으로 진주의 재가불자들이 함께 펼쳐온 불교회관 불사를 마무리한다. 안정임 센터장(진주불교회관 불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됐으며 보현의 집 개원식을 마지막으로 불사 회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불교회관 불사는 앞으로 진주 불교

의 용성을 다시 회복하고 맞이하는 준비 단계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불교회관은 21년 전 재가자들이 만든 신행 단체로 불교교양대학, 어린이법플스테이, 불교문화한마당, 청소년지원센터, 대불련지원사업, 진주불교청년회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재가자들의 신행활동의 중심지로 활용됐다. 2006년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진주불교회관은 불교문화화관 건립 발원을 세우고

### 노스님 위한 밀반찬 공양

### 군법당에 간식 제공도 계획

2013년 3월 5일 진주불교회관 건립추진 위원회를 발족했다. 경남에 있는 스님들을 비롯해 진주지역의 3,000여명 재가불자들이 동참해 불사를 추진하고 완공을 한 진주불교회관은 2014년 10월 29일 회관 이전 대법회를 봉행했다. 진주불교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다양한 불교 수업 및 불교 문화콘텐츠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후원 농협 351-0806-6097-33 (사)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055)747-0108

하성미 기자

## 메르스 극복 위한 발원 기도 ‘눈길’

대구 대관음사, 19일 메르스 퇴치 21일 기도 입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사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가운데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이하 대관음사)가 메르스 극복을 위한 발원 기도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관음사는 6월 19일 ‘메르스 퇴치를 위한 국민·가족 건강 발원 21일 기도’를 입제했다. 기도 동참자들은 매일 △관세음보살 정근 1시간 △108배 △금강경 1독으로 국민과 가족의 건강을 발원하게 된다. 또한 사시불공 기도 동참자에 대한 축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대관음사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토요일 무료급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요양원 면회도 사절하고 있다. 출석 강의도 6월 29일까지 인터넷 강의로 전환시켰다.

또한 수시로 전 도량의 손잡이와 해우소를 전체 소독하고 있으며, 사찰 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위생과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대관음사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도량의 청결을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청정히 함으로써 메르스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6월 19일 ‘메르스 퇴치를 위한 국민·가족 건강 발원 21일 기도’를 입제했다.

## 통도사, 가뭄 극복과 메르스 퇴치 기원

6월 20일 단오절 용왕제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메르스와 가뭄에 고통 받고 있는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 건강을 발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통도사는 대방광전 앞 구룡지에서 6월 20일 단오절 행사를 개최하고 메르스 퇴치와 가뭄 해소를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동진 스님 및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했다.

전각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500여년 동안 단오절 용왕제를 개최해온 통도사는 이번 해에는 특별히 가뭄과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는 자리로 진행해 더욱 뜻 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로 통도사는 금강계단에서 용왕제를 열고 경내 주요 전각에 비치되어 있던 소금단지를 교체했다. 이어 참가한 대중에게 주지 영배 스님은 ‘화하마진연’을 불인 소금주머니를 전달하고 화재와 재난에서 안전하기를 기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메르스와 가뭄에 고통 받고 있는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 건강을 발원하기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했다.

한편, 통도사는 지난 19일 영축환경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신불산케이블카 설치하는 환경을 파괴하며 통도사에서 진행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된다”며 새롭게 출범한 영축환경위원회에게 자연 보호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축환경위원회 2기 위원장에는 통도사 사회국장 마벽 스님과 부위원장에게 진각 스님(통도사 기획국장)이영경 동국대 교수 등을 선임했다.

하성미 기자

## “부처님과 함께 신나는 여름방학 보내자”

한마음선원 등 부산지역 여름 수련회 풍성

메르스도 막을 수 없다. 신나는 방학을 맞아 경남 부산의 사람들이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과 오감을 자극하는 시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하)는 7월 18일~21일, 7월 25일~29일, 8월 5일~8일,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 대상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이며 어린이는 7월 25일에 열리는 어린이 한문학당에 참가 가능하다. 수련회 프로그램은 다례체험, 별보기 명상, 나를 돌아보는 명상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신청은 <http://www.ssanggyesa.net/home/>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는 ‘멋쟁이 대장부’ 템플 스테이는 7월 11일~12일, 7월 25일~26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청소년 ‘최고야 대장부’는 8월 8일~9일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여름수련회도 준비한다. 청년

하성미 기자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음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저자 보현스님의 ‘개인상담을 통한 참 수행 명상 禪 수행’ 대중모집

하루 7분 수행으로 내 안의 다이아몬드를 찾자

행복충전소 부처님 마을에서는 행복한 생활 명상선을 주제로

‘생활선 명상법회’ 및 ‘1:1개인 맞춤 생활선’을 집중 지도해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참가하실 대중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수시

■ 명상법회 : 매주 화, 토, 일

■ 참가문의 : 행복 충전소 (평창동) 부처님마을 ☎ 02)379-2010

행복충전소 부처님 마을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15